

### 찾아오시는 길

지하철 1호선: 시청역 4번 출구에서 마을버스 11번 이용

3호선: 경복궁역 5번 출구, 안국역 1번 출구에서 도보로 15분

5호선: 광화문역 2번 출구에서 마을버스 11번 이용

**버 스** 광화문 세종로 일대 버스정류장(도보로 15분)

주 차 경복궁 주차장 이용

**주 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로 37 국립민속박물관(110-820) The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Samcheongro 37, Jongno-gu, Seoul 110-820, Korea

전 화 02-3704-3114 홈페이지 www.nfm.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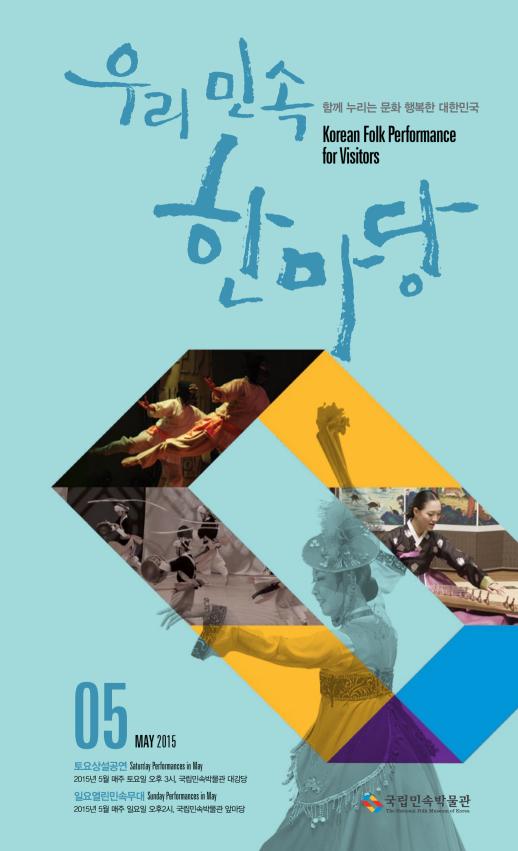
### 이용안내

### 개관 및 관람 시간

03~05월	09:00-18:00	17:00까지 입장
06~08월	09:00-18:30	17:30까지 입장
09~10월	09:00-18:00	17:00까지 입장
11~02월	09:00-17:00	16:00까지 입장
05~08월 주말·공휴일	09:00-19:00	18:00까지 입장
야간개장 매달 마지막 수요일	09:00-21:00	20:00까지 입장

휴관일 매주 화요일 입장료 무료

※공연접수 공고는 4~5월과 9~10월에 박물관 홈페이지를 통해 하고 있습니다.





### 5월 토요상설공연

Saturday Performances in May, Every Saturday 3:00pm, Museum Auditorium

2015년 5월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국립민속박물관 대강당



### 제894호

문화 이야기

Culture Story

05.02.



### 제895회

이효민의 춤 '화양연화'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순간〉

Lee Hyomin's Dance 'Hwayangyeonhwa' < The most beautiful and happiest moment of life>

05.09.



### 제896회

송미숙의 살푸리展

'Salpurijeon by Song Misuk

05. 16.



#### 제897회

천주미의 가야금병창의 멋

The beauty of gayageum byeongchang by Cheon Jumi

NS 23.



#### 데898회

전미애의 전통춤 나들이

Traditional dances by Jeon Miae

05. 30.

### 5월 일요열린민속무대

Sunday Performances in May, Every Sunday 2:00pm, Museum Courtyard  $\,$ 

2015년 5월 매주 일요일, 오후 2시, 국립민속박물관 앞마당



### 제368회

힐링 국악콘서트 '신명의 소리여행'

Healing gukak concert 'Exciting journey of sori'

05. 03.



### 제369회

다 함께 놀자! 택견 한마당!

Let's have fun together! Let's enjoy takkyeon!

05.10.



### 제370회

전통연희와 풍류

Traditional plays and arts

05. 17.



### 제371호

국악프로젝트 '호연에 반하다'

Gukak project 'Fascinated with Hoyeon'

05. 24.



### 제372회

FROMKOREA의 젊은 난장

Young Souls' Nanjang by FROMKOREA

05 31

9201 05 MAY 2015

제894회 토요상설공연 The 894th Saturday Performance 0 0 7 **Culture Story 2015.05.02.** Saturday(토) 3:00pm 국립민속박물관 강당 Museum Auditorium

### 공연내용 Performance Description

이번 공연은 소멸 위기에 처해 있는 문화유산의 보존과 재생 그 가치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준비했다. 첫 무대는 중요무형문화재 제1호 유네스코에 등재된 종묘제례악을 해설을 곁들여 연주한다. 이어지는 관현악 아리랑은 교항악편성으로 작곡된 곡으로 2008년 뉴욕필하모니 오케스트라가 북한의 동평양 대극장에서 연주했던 곡이다. 판소리의 역사와 구성 요소들을 해설을 통해 배워보고 실내악 반주와 함께 선보이는 판소리 사랑가, 우리나라 대표 놀이인 강강술래, 전통장단과 흥겨운 리듬에 맞춰 현대적 감성에 맞게 짜인 곡 프론티어, 마지막으로 유네스코 유형문화유산에 등재된 수원화성의 성곽을 보고 전통 관현악으로 아름다움을 표현한 작곡자 조원행의 추어성으로 공연을 마무리한다

This show puts its focus on the preservation and restoration of cultural heritages in danger of extinction. The first part of the show is dedicated to presenting 'Jongmyo Jeryeak' (Royal ancestral rites music), the UNESCO World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No.1, along with a description. It is followed by 'Orchestral arirang' composed as a symphony that was once played by the New York Philharmonic at the North Korea's East Pyongyang Grand Theatre in 2008. A detailed description will give you a glimpse of the history and components of 'pansori' while the remaining part of the performance is seasoned with 'Pansori saranga' played to the accompaniment of chamber music, 'Ganggangsullae' - a typical Korean traditional nori, and 'Frontier' - a musical piece blended with traditional beats & rhythms and modern sensibility.

And then 'Chuyaseong' by Cho Wonseong will close the show, which is a piece of traditional orchestral music expressing the beauty of Suwon Hwaseong from the UNESCO World Cultural Heritage list.

### 공연순서 PROGRAM

- 01 종묘 제례악 Jongmyo Jeryeak (Royal ancestral rites music)
- 02 관현악 아리랑 Orchestral arirang
- 03 판소리 사랑가 Pansori saranga
- 04 강강술래 Ganggangsullae
- 05 프론티어 Frontier
- 06 추야성 Chuyaseong



'대표 최여영(시흥시립전통예술단 악장)

**소리** 이효덕

연주 노현아, 김희정, 김정훈, 최혜숙, 장옥주, 김예슬, 김진석, 권빛나, 박종국, 윤광현, 김성회, 차효진 제895회 토요상설공연 The 895th Saturday Performance

# 이 효민의 춤 '화양연화'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순간〉

Lee Hyomin's Dance 'Hwayangyeonhwa' <The most beautiful and happiest moment of life>

**2015. 05. 09.** Saturday(토) 3:00pm

국립민속박물관 강당 Museum Auditorium



### 공연내용 Performance Description

이 공연은 소중한 인연, 행복한 순간들이 가득 담긴 이효민의 춤으로 꾸며진다.

첫 무대 '얼 쑤'는 봉산탈춤 미얄과장 중 바람난 영감과 애첩 덜머리집의 사랑 놀음을 해학적으로 풀어 익살스러운 몸짓으로 재미를 더했다. 이어서 발짓 춤과 섬세하고 우아한 손놀림이 일품인 '태평무'와 자루가 달린 소고를 들고 경쾌하게 움직이며 추는 '소고춤', 헤어질 듯 애간장을 녹이는 한국인의 사랑법과 두 사람의 농익은 춤이 담긴 '사랑가', 부채를 가지고 여성미와 우아하고 멋스러운 자태를 표현한 '부채산조', 남성적이며 아름다운 몸짓과 오묘한 가락이 조화를 이루는 '진도북춤', 가볍고 발랄한 움직임과 활동적인 발 디딤새가 역동성을 더해주는 창작무 '경고무'를 선보인다. 마지막으로 무당들이 굿을 하며 추는 춤을 우리 정서에 맞게 창작화한 작품으로 소리나는 방울을 양 손목에 차고 흔들며 춤을 추는 '쟁강춤'을 이효민의 독무로 재구성하여 선보인다.

This show presents Lee Hyomin's dances that fully depict invaluable relations and happy moments in life.

'Eol Ssu', the first part of the show comes from the Bongsan Talchum Miyal Gwajang and narrates in a humorous way a love story of an old man and his mistress Deolmeorijib, through dancers' funny gestures adding excitement. It is followed by 'Taepyeongmu' full of excellent footsteps and sophisticated and elegant hand gestures, 'Sogochum' by a dancer moving cheerfully with a sogo in his/her hand, 'Sarangga' in which two dancers show the way Koreans stay in love despite a series of almost break-ups, 'Buchaesanjo' boasting feminine beauty and elegant poise, 'Jindo bukchum' with a display of masculine and beautiful gestures balanced with unique rhythms, and 'Gyeonggomu' - a creative dance whose light and cheerful movements and vigorous footsteps bring in more dynamic features.

The last part of the show is Lee Hyomin's solo dance that has restructured 'Jaenggang-chum' where dancers perform with bells on both their wrists, reinventing shamans' dances during rituals into one that appeals to Korean sentiment.

### 공연순서 PROGRAM

- 01 얼 쑤 Eol Ssu
- 02 태평무 Taepyeongmu
- 03 소고춤 Sogochum
- 04 사랑가 Sarangga
- 05 부채산조 Buchaesanjo
- 06 진도북춤 Jindo bukchum
- 07 경고무 Gyeonggomu
- 08 쟁강춤 Jaenggangchum



대표 이효민(계원예술고등학교 강사)

연출 김선정(단국대학교 예술조형대학 무용과 교수)

**출연** 장희옥,김진아,황정아,장두레, 심다속,손수연,박인혜,조승렬 제896회 토요상설공연 The 896th Saturday Performance

## 송미숙의 살푸리展

Salpurijeon by Song Misuk

**2015.05.16.** Saturday(토) 3:00pm

국립민속박물관 강당 Museum Auditorium



### 공연내용 Performance Description

이 공연은 몸이 표현하는 서시를 통해 인생의 희노애락(喜怒哀樂)을 송미숙의 농익은 춤사위에 담아 보여준다. 첫 무대는 아름답고 화려한 부채를 들고 기하학적인 대형과 우아한 움직임으로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부채춤을 선보인다.

이어서 살풀이 장단을 중심으로 멋보다는 규범을 우선으로 하는 입춤형식의 민살풀이춤, 과거 어전연희나 내연에서 국태민안을 위해 선보였던 축원무, 마음을 위로하는 씻김과 푸리로 마음을 정화하고 풀어내는 신검푸리, 농악반주에 맞춰 경쾌하고 절도 있게 몰아치는 소고춤, 경기도무형문화재 제34호 안성향당무로 지정된 종목 중 하나인 홍애수건춤, 아름다운 연보가 특징인 창작 장고춤을 선보인다. 마지막으로 삼도의 유명한 장구가락을 모아 가장 으뜸된 장구잽이가 선보이는 설장고놀이로 공연을 마무리한다.

This show presents a display of Song Misuk's skilled dance moves that depict joy, anger, sorrow and pleasure of life.

In the first part of the show, you will watch 'Buchaechum' globally renowned for its geometric formation and elegant moves unveiled with beautiful and splendid fans. What follows is 'Minsalpurichum' performed to the accompaniment of salpuri rhythms based on patterns rather than beauty, 'Chugwonmu' performed in plays before the king or royal banquets for the sake of national prosperity or people's welfare, 'Singeompuri' whose cleansing and exorcising practices purify minds and comfort hearts, 'Sogochum' that displays a whirl of rhythmical and restrained moves to the tune of Nongak, 'Hongaesugeonchum' - one part of 'Anseonghyangdangmu', Gyeonggi-do'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No. 34, and 'Jangjak janggochum' with beautiful, outstanding footsteps. Finally, 'Seoljanggonori' is presented by the best janggu player who plays janggu melodies well-known in three regions (Chungcheong-do, Jeolla-do and Gyeongsang-do).

### 공연순서 PROGRAM

- 01 부채춤 Buchaechum
- 02 민살풀이춤 Minsalpurichum
- 03 축원무 Chugwonmu
- 04 신검푸리 Singeompuri
- 05 소고춤 Sogochum
- 06 홍애수건춤 Hongaesugeonchum
- 07 장고춤 Janggochum
- 08 설장고놀이 Seoljanggonori





대표 송미숙(국립진주교육대학교 교수)

연출 김경은, 사회 홍애령

출연 문진수, 김신애, 김성민, 최윤실, 변영화, 김민지, 김주윤, 조선화

반주 앙상블 필(馝) - 박헌수(장구), 신비성(대금), 신정민(아쟁), 김명원(피리), 노성덕(해금), 고영렬(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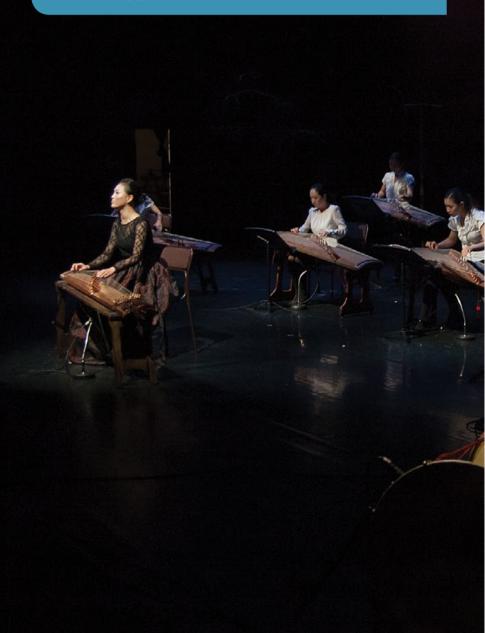
천주미의 가야금병창의 멋

제897회 토요상설공연 The 897th Saturday Performance

The beauty of gayageum byeongchang by Cheon Jumi

**2015. 05. 23.** Saturday(토) 3:00pm

국립민속박물관 강당 Museum Auditorium



### 공연내용 Performance Description

이 공연은 전통 가야금병창과 창작 가야금병창을 함께 선보이는 무대이다.

첫 무대는 25현 가야금병창 곡으로 여러 지역의 대표적인 민요를 엮어 노래한 곡으로 여러 장단의 느낌을 표현하는 팔도민요모음곡을 선보인다.

이어서 정선아리랑을 편곡한 곡으로 노래의 시김새를 살려 구성한 정선에 내리는 비, 대중적인 클래식 곡들을 엮어서 25현 가야금병창으로 구성한 클래식 모음곡, 전통 가야금병창으로 판소리 수궁가 중 고고천변, 25현 가야금병창 곡으로 판소리 심청가 중 심청이가 인당수에 빠지는 대목을 재창작한 꽃이 내린 자리, 마지막으로 먼저 떠나는 자식의 마음을 '상주모심기'의 가사를 토대로 25현 가야금병창 곡으로 재창작한 길 떠나는 노래로 공연을 마무리한다.

This show presents traditional gayageum byeongchang, together with newly created one. The 'collection of paldo folksongs', the 25-string gayageum musical piece, starts the show by playing to different tunes typical folksongs of various regions. It is followed by 'Rain falling in Jeongseon' - originally 'Jeongseon arirang' arranged to highlight its sigimsae (grace notes), 'Collection of classics' - popular classical songs played with the 25-string gayageums, 'Gogocheonbyeon' - traditional gayageum byeongchang from the pansori 'Sugungga', and 'Where a flower is in bloom' reenacting the scene from the pansori 'Simcheongga' where Simcheong jumps into the Indangsu water. Meanwhile, 'A song on a journey' recreated into a 25-string gayageum musical piece with its lyrics from 'Sangjumosimgi' that describes the feeling of those who leave this world before their parents.



### 공연순서 PROGRAM

- 01 팔도민요모음곡 Collection of Paldo Folksongs
- 02 정선에 내리는비 Rain falling in Jeongseon
- 03 25현 가야금3중주 '클래식모음곡' 25-string Gayageum trio 'Collection of Classics'
- 04 가야금병창 수궁가 중 '고고천변' Gayageum byeongchang (Gayageum performance & singing) 'Gogocheonbyeon' from Sugungga
- 05 25현 가야금병창 '꽃이 내린 자리' 25-string Gayageum byeongchang 'Where a flower is in bloom'
- 06 25현 가야금병창 '길 떠나는 노래' 25-string Gayageum byeongchang 'A song on a Journey'



대표 천주미 (중요무형문화재 가야금산조 및 병창 이수자)

출연 천주미, 김미림, 이슬이, 우혜영, 전소이, 이건혜, 박소미, 조연정, 천지훈



### 공연내용 Performance Description

이번 공연은 무형문화재 제 92호 태평무 이수자인 전미애의 전통 춤 공연으로, 강선영 태평무를 비롯해 근대 한국 춤의 대표작품들을 선보인다

타악기를 소품으로 구성된 작품 중 장고 춤, 소고춤, 진도북춤과 화려함을 만끽할 수 있는 부채춤을 군무로 공연한다. 또한 여인의 단아함과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는 부채입춤과 한영숙 류살풀이춤을 보여준다.

전통 춤의 전승자로서 우리의 것을 지켜나가고 있는 춤의 진수를 보여주는 공연이 될 것이다.

This show presents traditional dance performances by Jeon Miae, the bearer of Taep-yeongmu which is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No. 92, along with modern Korean dances as well as Taepyeongmu by Kang Seonyeong. Among the dances to be presented in the show using percussion instruments are such group dances as 'Janggochum', 'Sogochum', 'Jindo bukchum' and 'Buchaechum' that shows off its glamorous features. The show is also seasoned with 'Buchaeipchum' and 'Han Yeongsuk's style of salpurichum' expressing a lady's grace and beauty.

You will for sure be amazed by the essence of the performances by the dancer who has preserved tradition as a bearer of a traditional dance.

### 공연순서 PROGRAM

- 01 장고춤 Janggochum
- 02 부채축 Buchaechum
- 03 25현가야금 병창 25-string gayageum byeongchang
- 04 소고춤 Sogochum
- 05 부채입축 Buchaeipchum
- 06 진도북축 Jindo bukchum
- 07 살풀이 Salpuri
- 08 태평무 Taepyeongmu



- 대표 전미애(무형문화재 제92호 태평무 이수자)
- 연출 손재현 사회 강윤선
- 출연 전미애,염복리,최혜경,이현숙, 이은희,차보영,지유정,김태은, 김현지,정단비,임지수,이예림

제368회 일요상설공연 The 368th Sunday Performance

힐링국악콘서트
'신명의소리여행'

Healing Gukak Concert 'Exciting Journey of Sound'

2015. 05. 03. Sunday(일) 2:00pm
국립민속박물관 앞마당 Museum Courtyard



### 공연내용 Performance Description

이 공연은 북을 두드리는'타(打)-연주자'와 이를 즐기는 '락(樂)-관객' 모두가 신명나게 하나 되도록 꾸민 무대이다. 첫 무대는 풍물연희와 소리굿으로 풀어내는 1마당 축원의 소리가 펼쳐지고, 한국인의 힘과 역동성을 느낄 수 있는 2마당 신명의 소리, 마지막으로 관객이 연주자가 되고 놀이꾼이 되는 3마당 소통의 소리로 진행된다. 한국적 기원문화와 동양적 정신문화 그리고 서양적 대중성을 연주자와 관객들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두드리고(Beat), 놀고(Play), 즐기는(Fun) 무대로 관객과 연주자가 아리랑으로 하나가 되고, 사랑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힐링 국악 콘서트로 준비했다. 추임새를 하고 어깨를 들썩이며 춤을 추는 모습에서 우리 전통연희 공연의 진면모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Traditional Performing Art Troupe, 'Janchimadang' presents a percussion performance. Throughout the show, audience members might feel like being united with the players while enjoying jolly percussion rhythms. Act 1 entitled 'Sound of Prayer' combining pungmul, Korean traditional percussion music and voice will raise the curtain. In act 2 named 'Sound of Exhilaration', performers fill the stage with genuine power and dynamics of the Koreans. Lastly, act 3 under the title of 'Sound of Communication' allows the audience to share the excitement of the performers.

Janchimadang will shape a unique performance with a blend of Beat, Play and Fun where the audience can acknowledge wishing and praying practice of Korea, eastern spirituality as well as western popularity. In Arirang, performers not only communicate with the audience; but they also deliver a message of love and hope through music. During the show, the audience members may fully appreciate the authenticity of Korean traditional performing art by making exclamations like Eolssu(Yippee)! Jota(Good)! and moving their shoulders up and down along its flow.

### 공연순서 PROGRAM

- 01 서막 Prelude
- 02 1마당(기원의 소리) Act1(Sound of Prayer) 길놀이와 축원 비나리 Gil Nori and Chugwon Binari 진도북춤과 판굿 Jindo Bukchum and Pangut
- 03 2마당(신명의 소리) Act2(Sound of Exhilaration) 타악 퍼포먼스 '천지인의 울림' Percussion performance 'Resonance of Heaven, Earth and Human' 창작연희 신모듬 Sinmodeum
- 04 3마당(소통의 소리) Act3(Sound of Communication) 팔도 아리랑 연곡 Paldo arirang medley 연희 판놀음 '인천아라리' Pannoreum Incheon Arari 대동놀이 Daedongnori



대표 서광일 (전통연희단 잔치마당 대표)

**연출** 윤건호

출연 유상호, 김호석, 오승재, 정지희, 나연임, 오부자, 김현주, 지규현, 최병진, 신정순, 장효선, 유주희 제369회 일요상설공연 The 369th Sunday Performance

# 다함께 놀자! 택견 한마당!

Let's have fun together! Let's enjoy taekkyeon!

**2015. 05. 10.** Sunday(일) 2:00pm

국립민속박물관 앞마당 Museum Courtyard



### 공연내용 Performance Description

이 공연은 조선시대 보고 즐기는 오락적 여흥거리 택견판 재현으로 우리 민족의 멋, 흥, 신명을 전달하는 무대이다.

택견은 무형문화재 제 76호이자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것으로, 일정한 규칙을 정해 기량과 기술을 겨루는데 윗마을과 아랫마을이 편을 갈라 시합을 벌이지만 경기에 이긴 마을은 논농사에 풍년이 들고, 경기에 진 마을은 밭농사에 풍년이 든다는 우리 선조들의 진정한 상생(相生)의 철학을 엿볼 수 있는 전통 무예이다.

젊은 세대들과 마음을 열고 공감과 소통을 통해 모두가 하나 되어 함께 즐길 수 있는 택견 공연이 될 것이다.

This show is the reenactment of taekkyeon pan, one of the fun activities of the Joseon Dynasty, the purpose of which is to promote the beauty, joy and mirth of the Korean people.

Taekkyeon,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No. 76, is on the The Representative List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by UNESCO. It is also a traditional martial art that conveys the philosophy of genuine sangsaeng (coexistence) among our ancestors. In the past, people from two different villages were split into two groups and measured their skills in accordance with certain rules. They believed that the winning and losing teams would enjoy a good harvest respectively in rice farming and dry-field farming.

The show will for sure offer everyone an opportunity to enjoy taekkyeon and be united through empathy and communic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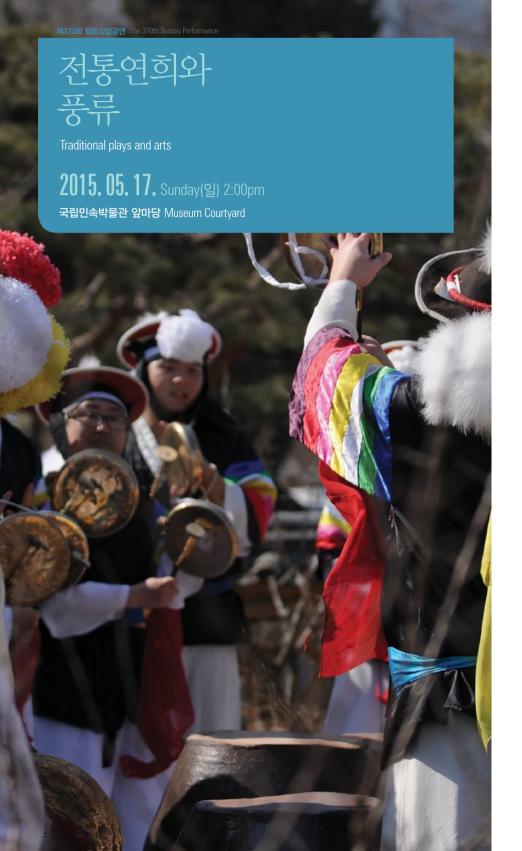
### 공연순서 PROGRAM

- 01 기본거리 Gibongeori
- 02 맞대거리 Mattaegeori
- 03 본때뵈기 8마당 Bonttaeboegi 8 madang
- 04 얼러메기기 · 연장누르기 Eolleomegigi & Yeonjangnureugi
- 05 결련택견 Gyeollyeon taekkyeon
- 06 다함께 택견 한마당 Let's enjoy taekkyeon!



**대표** 안재식(발광엔터테인먼트 대표)

출연 안재식, 이상호, 정현재, 고윤영, 이선민, 이지수, 이태훈, 이나라, 양선호, 오수영



### 공연내용 Performance Description

이 공연은 넉넉하고 푸짐하며 삶의 생동감이 넘치는 호남좌도 임실필봉농악이다. 공연은 굿을 시작하기 전에 치배(연희자)들이 손발을 맞추어 보며, 굿을 빠르게 몰아가는 형태의 굿머리 가락으로 시작하다

이어서 1채부터 7채까지 독립된 가락을 사용하여 장단의 빠름과 느림을 섞어가며 짜임새 있게 원진으로 움직이며 연주하는 채굿, 치배(연희자)들이 원진 반대방향 안쪽으로 달려 들어가 원진을 감아 돌면서 나선형 모양의 진법을 만들어 가며 꾸미는 방울진굿, 두 줄의 진 형태를 갖추고 진풀이 가락으로 태극 모양을 만들며 구음으로는 호호와 허이를 외치며 움직이는 호호굿으로 이어지며, 미지기굿으로 농악은 끝이 난다. 공연의 마지막은 치배(연희자)들의 개인놀이로 꾸며지는데 관람객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무대가 될 것이다.

Today, Imsil Pilbong Nong-ak (literally, famers' music) of Honam Jwado region in North Jeolla province that is full of vigor and vitality will be presented. The stage begins with Gutmeori gut of, which a group of chibae (performers) ensure details of the performance before presenting to the audience. In Chaegut, performers make a round formation while playing a set of 7 independent rhythms with fast and slow tempos combined. Banguljingut whose performers make a spiral shape; and Hohogut where the troupe lines up in 2 columns and shouts 'Hoho' and 'Heoi' will be followed. Nongak performance will conclude with Mijigigut and lastly, individual performers will delight the audience with their distinctive skills and talents.

### 공연순서 PROGRAM

1마당 호남좌도 임실필봉농악 Madang1. Honamiwado Imsil Pilbong Nongak

01 굿머리 가락 Gutmeori garak

02 채굿 Chae gut

03 방울진굿 Banguljin gut

04 호호굿 Hoho gut

05 미지기영산굿 Mijigi Youngsan gu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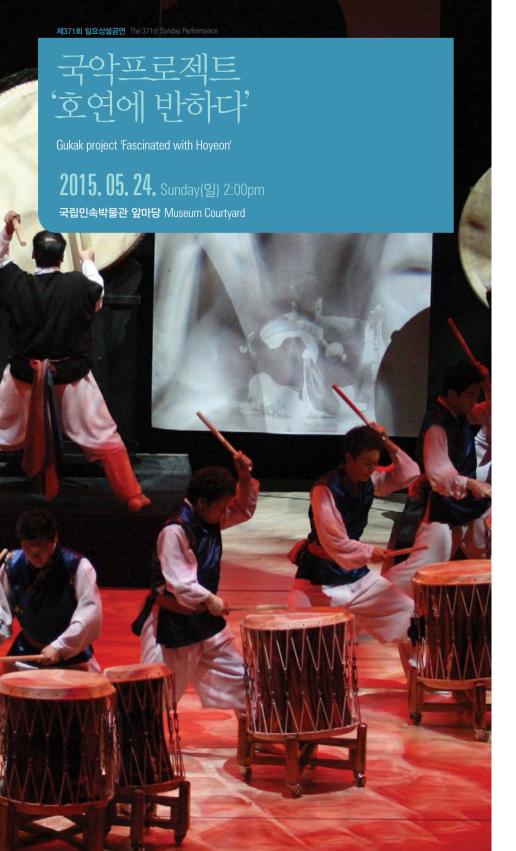
2마당 개인놀이 Madang2. Solo performances



대표 송주광(전통연희연구소 예술감독)

**연출** 정일협

출연 서신석, 정일협, 김린한, 정선희, 최동숙, 정은경, 김재균, 이미자, 문번수, 김석준, 이주희, 김태환, 하정호, 정연주, 문현정, 이난형



### 공연내용 Performance Description

이 공연은 전통예술단 국악을 일반 대중들에게 보다 쉽고 편안하게 보여 주기위해 준비한 전통 연희이다. 첫 무대는 모듬북 합주곡 '공명'으로 대한민국의 기상을 여러 대의 모듬북으로 구성한 작품으로 대북의 웅장함과 화려한 모듬북 가락으로 공연의 시작을 알린다.

이어지는 'SOUL WIND'는 태평소협주곡으로 태평소 선율과 현대음악의 만남을 맛볼 수 있는 전통예술단 호연이 창작한 곡이다.

다음으로는 '판MUSIC'으로 기존에 알고 있던 판소리를 쉽게 재해석하여 관객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대중적인 곡으로 만들어 시민들의 감성을 자극할 수 있는 무대가 될 것이다. 공연의 마지막 순서인 제비놀이 '뱅뱅'은 관객들과 출연자가 함께 어우러지는 자리로 기존의 사물판굿 작품에 재미와 극적인 요소를 가미하여 전통예술단 호연만의 색깔로 재구성한 것이다.

This show gives people easier access to 'gukak (Korean traditional music)' played by a traditional art performance company.

The show kicks off with the assorted drums ensemble 'Gongmyeong' by playing the drums of different sizes to promote the spirit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following 'SOUL WIND' is a taepyeongso concerto composed by the traditional art performance company 'Hoyeon' that is played to the tune of taepyeongso in balance with modern music. It is followed by 'PAN MUSIC' that provides an easier interpretation of the existing pansori to let anyone among the audience enjoy it by reinventing the pansori into a popularized play. The show will go on until Jebinori 'Baengbaeng' serves as a platform where the audience and performers get together to restructure the existing 'Samulpangut' by adding excitement and dramatic features while

### 공연순서 PROGRAM

- 01 모듬북 합주곡 '공명' Assorted drums ensemble 'Gongmyeong'
- 02 'SOUL WIND'
- 03 '판MUSIC' 'PAN MUSIC'
- 04 제비놀이 '뱅뱅' Jebinori 'Baengbaeng'



대표 이찬행(전통예술단 호연대표)

**연출** 조영준

기획 김진미, 박세호

출연 이찬행, 김진미, 박세호, 송현주, 최동현, 조영두, 최보근, 이용준, 이건우, 김보미



제372회 일요상설공연 The 372nd Sunday Performance

### FROMKOREA의 젊은 난장

Young Souls' Nanjang by FROMKOREA

**2015.05.31.** Sunday(일) 2:00pm

국립민속박물관 앞마당 Museum Courtyard



### 공연내용 Performance Description

이 공연은 우리 고유의 풍류, 재담과 동작으로 전통연희의 즐거움을 함께 느낄 수 있도록 관객과 소통하는 공연이다. 첫 무대는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를 대표하는 풍물가락을 짜임새 있게 엮어 사물(꽹과리, 장구, 북, 징)로 표현해 내는 삼도의 풍물가락이 신명으로 결합되어 연주되는 앉은 반 사물놀이를 선보인다. 이어서 판소리의 한 대목을 듣고 팔도의 아리랑을 메들리로 들어보며 추임새도 배워보는 팔도유람아리랑, 일명 남사당놀이의 민속예능의 한가지로 버나를 돌리고 던지며 묘기를 부리며 재담을 주고받는 버나놀이, 한국 전통가락을 기반으로 외국 리듬문화를 반영하여 창작된 타악 퍼포먼스 '청춘서심', 마지막으로 머리에 상모를 쓰고 사물악기를 연주하는데 움직임에 제약이 없이 관객들과 함께 어우러져 흥겹게 놀 수 있는 선반 판굿과 상모놀음으로 공연의 대미를 장식할 것이다

This show offers an opportunity to communicate with the audience through displays of traditional arts and witty words and gestures to let everyone involved share excitement. The show kicks off with 'Anjeunban samulnori' that plays pungmul tunes of Chungcheongdo, Jeolla-do and Gyeongsang-do with samul instruments (kkwaenggwari, janggu, buk and jing), seasoned with excitement. It is followed by 'Paldoyuram arirang' through which the audience listens to a medley of arirangs of paldo (8 regions of the country) and learns chuimsae (some added words in between), 'Beonanori' - one part of 'Namsadangnori' where performers spin and throw beonas while doing tricks and exchanging witty words, and 'Cheongchunseosim' - a percussion concert created by matching foreign rhythms to Korean traditional tunes. It is not until the very last part of the show that the big finale comes with 'Seonban pangut' and 'Sangmonoreum' during which performers engage with the audience and have fun, playing the samul instruments without any difficult making moves even with sangmos on their heads while

### 공연순서 PROGRAM

- 01 앉은반사물놀이 Anjeunban samulnori
- 02 팔도유람이리랑 Paldoyuram arirang
- 03 버나놀이 Beonanori
- 04 타악퍼포먼스 "청춘서심" Percussion concert "Cheongchunseosim"
- 05 선반 판굿과 상모놀음 Seonban pangut & Sangmonoreum



대표 이상호 (FROMKOREA예술단 대표)

출연 인승현, 조삼열, 염두용,

이상원, 김지원, 김태준,

이강산, 이강토, 홍재현 외



